

Transforming
companies must put
cyber security front
and center

SUMMARY

본 보고서는 KPMG Global이 발간한 Thought Leadership이며, 삼정 KPMG 경제연구원에서 국문요약한 자료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1/cyber-security-front-and-center.pdf>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의 중요성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성장동력 (Growth Driver)이 될 수 있다. 기업의 경영진들 중 상당수는 사이버 보안을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오늘날 역동적인 시장환경 속에서 모든 기업들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방어 중심의 전통적인 보안관리 방식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의 경영진들이 더욱 사이버 보안을 중시해야 한다고 KPMG의 사이버보안 조직은 강조한다.

“
“
68%의 CEO는
‘사이버 대응을 위한
기업의 투자가
부족하다’고 평가

KPMG의 2016 Global CEO Outlook study 에서는 향후 3년은 글로벌 기업에 큰 변화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 1,300명의 글로벌 CEO 중, 77%의 CEO는 향후 3년간 ‘혁신’이 경영전략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68%의 CEO는 ‘사이버 대응을 위한 기업의 투자가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많은 경영진 및 이사진은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신기술을 채택하는 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이용해 경쟁사가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또 하나의 주요한 맹점은 경영진이 사이버 보안을 전반적인 비즈니스 전략의 일부로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한 IT 리스크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 'IT 예산 중 얼마를 사이버 보안에 지출하고 있는가?' 가 아닌 '비즈니스 관점에서 자사 예산 중 얼마를 사이버 보안에 투자하고 있는가?' 를 질문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을 IT 리스크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비즈니스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Data는 이제 비즈니스 전 영역에 걸쳐 주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은 데이터 무결성을 향상시키고 비즈니스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한 장비 제조업체는 장기간의 실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업체는 제품의 불량률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원인이 사이버 공격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조사 결과, 해커가 해당 기업의 품질관리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하여 결함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기업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 피해를 보았다.

한 유통업체 역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고객정보가 유출되었고, 이 사건으로 기업의 주가 하락, 브랜드 가치 훼손, 경영진 해임과 소송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뿐 아니라 기업의 전략적인 이익을 창출하던 비즈니스 성장 프로그램이 18개월 동안 중단되어 최소 수억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이 확실해졌다.

빠르게 변화하고 연결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영진은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최고 경영자는 사이버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확보해야 하며, 보안 조직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즉 비즈니스의 혁신과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사이버 보안은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KPMG International의 디지털 혁신 리더인 Stephen G. Hasty, Jr.는 "우리는 기술 기반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기업 이해관계자들은 사이버 보안을 비즈니스의 핵심 성공 동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들은 "기업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확신을 제공해야 된다"고 조언하면서, "사이버 보안은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yber Security 전문팀

김민수

상무이사

02-2112-7010

mkim9@kr.kpmg.com

이응도

상무이사

02-2112-0156

eungdolee@kr.kpmg.com

www.kr.kpmg.com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